
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자	2026년 1월 12일(월)	
담당 부서	안전총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통합관제팀장 장주현 ☎880-4826 •담당 주무관 조윤성 ☎880-4829
사진	있음		보도시점 배포 즉시

“지켜보고 있으니 안심하세요” 미추홀구, 실시간 관제로 주민 생활 안전망 강화

인천 미추홀구(구청장 이영훈)는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한 ‘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(CCTV)’ 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작년 12월 기준으로 구 관내에는 1,995개소에 3,278대의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(CCTV)을 운영 중이다. 특히,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들이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.

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실시간 관제를 통해 해결된 범죄 사건은 총 112건에 달한다. 또한, 경찰 등 공공기관과 개인에게 사건·사고 해결을 위한 영상자료를 제공한 건수도 4,000여 건을 넘는다.

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(CCTV)은 범죄 해결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. 일례로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공원에서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신속히 119 출동을 요청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주민의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.

구 관계자는 “지난해 18억의 예산을 투입해 207대의 방범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(CCTV)을 신규 설치했다.” 라며, “올해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